



[뉴스] LGU+ - CJ ENM 송출중단 책임 공방 02



Economy

코스피	3249.32 (0.00)	코스닥	991.13 (0.00)
금리 (국채 3년)	1.276 (-0.006)	환율 (USD-달러)	1110.80 (-5.00) (11일)

'5兆는 무리'... 이베이 매각 불발되나

이번주 우협대상자 공개 롯데·신세계 '인수 2파전' 양사 입찰가 5조 못 미쳐 투자업계 매각 무산 예상



롭(이마트·네이버)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예비입찰에 참가했던 SK텔레콤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불참했다.

이베이코리아 본입찰에 들어간 롯데·신세계그룹이 써낸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5조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이가 이베이코리아의 가치를 5조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만큼 3조원 중반~4조원 초반 수준이라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회원수·거래액 늘릴 카드

이베이가 이베이코리아의 몸값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위인데다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의 지난해 거래액은 20조원 가량이다. 가입자 수도 300만명에 달한다.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롯데나 신세계에게 단시간에 회원수와 거래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투자은행 업계는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무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베이 본사가 시간에 쫓기듯 옥션·G마켓을 매각해야 할 만큼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이베이는 20조 2912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 지역 커뮤니티의 온라인 판

고를 중개하는 사업부를 경쟁사인 노르웨이의 광고회사 아데빈타에 넘겼다. 매각대금은 92억 달러(10조4434억원)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상황에서 굳이 저렴한 가격에 이베이코리아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5월 예정된 본입찰 불발도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인수가가 이베이 본사가 희망하는 매각가와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5조원' 가치 글썩?

반면 유통업계는 이베이코리아가 제시한 5조원 몸값이 과하다는 판단이다. 네이버와 쿠팡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G마켓과 옥션, G9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미디어 '제3회 FFTK2021' 푸드테크 비전을 현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푸드테크의 비전을 현실로 이끌어 줄 '푸드리더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는 기업 경영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두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일은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푸드리더'들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6월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1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1)'를 개최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푸드리더십, 비전에서 확실한 현실로'란 주제로 그동안 제시해 온 미래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방안들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루 앤 윌리엄스 이노바마켓인사이트 공동 창업자이자 글로벌 인사이트 이사가 기조강연을 맡습니다. 이노바마켓인사이트는 이노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업계 친환경 ESG경영'을 주제로 하는 첫 세션에서는 저스트에서 글로벌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조단 테트릭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저스트는 실리콘밸리의 식물기반 푸드테크 선두주자로, 인공계란 '저스트 애그(JUST EGG)'를 개발한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어 김대훈 누비랩 대표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누비랩은 1초 내 음식의 양과 종류를 파악하고 식습관을 분석해 개인 헬스케어 솔루션, 음식물 쓰레기 축소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세션에서는 식신 대표이자 한국 푸드테크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익 대표, 실시간 배송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유정범 매쉬코리아 대표가 연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푸드리더십, 비전에서 확실한 현실로
- 일 시 : 2021년 6월24일(목)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미디어(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주 관 : 에이커스
- 등 록 : 참가비: 일반참가자 110,000원 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30명 제한) *참가확인 메일 회신 필수 및 현장 학생증 제시
- 문 의 : 에이커스(02-6020-6833), 이메일 fftkgo@gmail.com
-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담 나누는 文- 바이든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 앞 해변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에어쇼를 기다리며 회담을 나누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

'생활물류 대동맥' 택배 노·사 줄다리기 점입가경

노조, 이번주 파업수위 강화 배송 차질에 소상공인 울상

택배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그 '대동맥' 역할을 하는 택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사와 노동조합간 줄다리가 더욱 팽팽해지면서다.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번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노조가 "합의 아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파업으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의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는 등 차질

을 빚고 있다.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50.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경기 성남 분당·수정구 일부, 여주, 용인시 상현동 일부, 화성시 정남면 일부 등 수도권권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전체, 창원시 전체 등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단체인 택배대리점연합을 통해 지난 10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다.

전국 택배기사는 약 5만4000명이고, 이 가운데 12%인 6500여명이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우체국택배가 2750여명으로 가장 많고,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2430여명, 한진과 롯데가 500여명씩, 그리고 로젠, 쿠팡 등의 노조원이 가입해 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한 인원은 2100여명이고 나머지는 오전 9시 출근, 오전 11시 배송 출발 등 태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전체 택배기사의 약 4% 수준만이 직접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 이번 총파업이 '택배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한진과 롯데는 일부 지역에 대해 개별 택배 물품들을

배송하기 위해 모으는 집화에 대해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운반이 지연되며 택배를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해서다. CJ대한통운은 집화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대리점 등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서울, 3일간격 '3인조강도' 공포... 경찰 '연관 없어'
▲ '5살 남아 뇌출혈 학대' 20대 계부·친모 영장심사... 계부 "혐의 인정" /사진 뉴시스

▲ 광주 버스매물 생존자 "굉장한 기억날 뿐... 이후 병원이었다"
▲ 典 "6월 국회, 민생·경제 숨통 틔우겠다... 국회 협력 당부"



▲ 윤석열, 대변인 이상록 추가 영입... 조선·동아 '공보' 양축
▲ 취임 한 달 김부겸... "밥값 하는 총리 될 것... 복지국가 시작 노력" /사진 뉴시스